

중학생을 위한 한국형 위험행동 도구 개발

박현숙¹ · 조금이²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¹, 대구과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²

Development of a Korean Risk Behavior Scale for Middle School Adolescents

Park, Hyun Sook¹ · Jo, Geum Yi²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²Full-time 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Taegu Science College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risk behavior scale for Korean middle school adolescents. **Methods:** The process included construction of a conceptual framework, initial items, verification of content validity, selection of secondary items, and extraction of final items. The participants were 717 adolescents from six middle schools in three cities. Item analysis, factor analysis, criterion validity, and internal consistency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Results:** Fifty seven items were selected for the final scale, and categorized into 4 factors explaining 48.11% of total variance. The factors were labeled as latent problem behavior (38 items), suicidal behavior (7 items), runaways (3 items), and internet negative use (9 items). The scores for the scal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crisis. Cronbach's alpha coefficient for the 57 items was .92. **Conclusion:** The above findings indicate that the risk behavior scale has good validity and reliability when used with Korean middle school adolescents.

Key Words: Adolescents, Risk behavior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가 되면서 다양한 위험행동(risk behavior)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험행동은 청소년의 신체적, 심리적 장애 및 행동발달 상의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타인이나 사회에도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Jeon, 2002). 특히 중학생 시기는 아동기의 부모 의존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로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정서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며 심리적으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환경적, 개인적 요인 등과 관련된 심리 내

외적 자극으로 흡연, 음주, 가출, 학교폭력 등의 위험행동이 시작되며, 이러한 위험행동은 그 행위의 특성상 청소년 자신의 건강, 사회성 또는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할 뿐만 아니라(Michael & Ben-Zur, 2007), 심각한 문제행동으로도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 시기는 청소년의 정상 발달과정에서 심각한 문제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적 조치와 중재가 필요하다(Kim, H. L., 2008).

위험행동에 대한 정의는 측정도구 개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위험행동을 포함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행동의 범주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성인이 위험한 것으로 정의한 행동과 청소년이 위험한 것으로 정의한 행동 간에는

주요어: 청소년, 위험행동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Hyun Sook, College of Nursi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3056-6 Daemyeong 4-dong, Nam-gu, Daegu 705-718, Korea. Tel: 82-53-650-4827 Fax: 82-53-650-4392 E-mail: parkhs@cu.ac.kr

- 본 연구는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임(NRF-2009-0067064).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NRF-2009-0067064).

투고일 2010년 4월 19일 / 수정일 1차: 2010년 6월 9일, 2차: 2010년 6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0년 6월 21일

차이가 있으므로(Gullone, Moore, Moss, & Boyd, 2000),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보고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험행동은 하나의 ‘불안정한 행동’이며, 직접적, 잠재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안전성을 해치는 동시에 제2, 제3의 다른 위험까지 초래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상적이고 긍정적인 발달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이다(Kim, M. S., 2008). 위험행동은 비행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부정적 잠재성을 함축하고 있는 무모한 행동뿐만 아니라 모험적이고 개척적인 행동과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행동까지를 포함하므로, 청소년기의 정상적인 발달과정의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Han, 2006). 그러나 위험행동은 극단적 문제행동으로 발전될 수 있고(Kim, H. L., 2008), 사회적 규범에 위반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며(Han, 2006),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이나 법적 제재를 유발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Kim, M. S., 2008), 학교 내 예방 및 지원 체계 마련과 조기 발견이 필요하다.

Gullone 등(2000)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기저하는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의 보고를 기초로 한 결과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모험추구행동, 반항적 행동, 무모한 행동, 반사회적 행동과 같은 4개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모험추구행동이란 도전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행동을 의미하며, 위험한 스포츠나 위험한 성행동 등이 포함된다. 반항적 행동과 반사회적 행동은 생명을 위협하는 성질의 행동이라기보다 사회적 혹은 법적 결과로 귀착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며, 무모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부정적인 결과 혹은 건강에 위협이 되는 행동으로 음주운전, 주사바늘의 공유 등이 포함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다룬 Yoon과 Nam (2004)의 연구에서는 앞서 개발된 Gullone 등(2000)이 범주화한 4가지 행동유형 중 반항적 행동에 속하는 음주, 흡연, 폭력, 가출 등을 청소년기 위험행동으로 정의하고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한편 Han (2004)의 연구에서는 Gullone 등(2000)이 범주화한 4가지 행동유형 중 반항적 행동과 모험추구행동을 청소년기 위험행동으로 정의하고 위험행동을 측정하였다.

미국의 국립질병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06)에서는 미국 청소년의 사망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환율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위험행동실태조사(youth risk behavior surveil-

lance, YRBS)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청소년의 상해와 폭력, 흡연, 알코올과 기타 약물 남용, 성과 관련된 행동, 부적절한 식사, 부적절한 신체활동, 과체중과 체중조절 등의 7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다룬 일부 선행연구(Kim, 2004; Kim, 2006)에서는 위의 7가지 영역 중 부적절한 식사, 부적절한 신체활동, 과체중과 체중조절 등의 3가지 요인이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는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하고, 위험행동에 대한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상해와 폭력, 흡연, 알코올과 기타 약물 남용, 성과 관련된 행동 등의 4가지 요인으로 청소년 위험행동을 구성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국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Gullone 등(2000)이 개발한 위험행동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미국의 청소년위험행동실태조사(YRBS)를 위해 개발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유사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시기에 나타나는 주요 위험행동은 음주, 인터넷 사용, 학교폭력, 흡연, 학교중퇴, 가출, 자살 등이며(Kim, Lee, Kweon, Oh, & Kim, 2009), 이들 위험행동은 극단적인 문제행동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상실(loss)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음주와 흡연은 비행으로 이끄는 출입구(gateway)가 되고, 인터넷 사용은 폭력적 게임이나 음란물 접촉 등을 통해 청소년 문제행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Kim, 2009), 자살시도는 사춘기 시절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급격하게 높아지므로, 이러한 위험행동을 포괄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위험행동이 학교보건이나 지역 내 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임상영역에서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지금까지 다루어진 연구들은 문제행동이 두드러진 선별된 특수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그 연구결과를 일반 학교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적 차원의 접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위험행동이 문제행동과 비행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차단하고,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동시적 개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중학생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문제행동과 비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행동에 대한 검토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위한 한국형 위험행동 도구

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청소년의 위험행동 예방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서 위험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문제행동 유발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위험행동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중학생을 위한 위험행동 도구를 개발한다.
- 중학생을 위한 위험행동 도구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방법론적 연구이다.

2. 도구 개발 과정

1) 개념적 기틀의 형성

우리나라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의 개념적 기틀을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 위험행동의 선행연구와 문헌을 검토하였다. 청소년 위험행동, 문제행동, 일탈행동을 주제로 하여 MEDLINE, CHINEL, PubMed, EBSCOhost, KISS에서 최근 10년 동안 문헌을 탐색한 결과 2,032편이었으며, 외국문헌이 1,689편이었고, 국내문헌이 343편이었다. 그 중에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청소년 위험행동을 파악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토대로 중학생의 위험행동에 대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Kim (2004)과 Kim (2006)은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미국의 청소년위험행동실태조사(YRBS)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이 도구는 상해와 폭력, 흡연, 알코올과 기타 약물 남용, 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Han (2004)은 청소년의 위험행동 측정을 위해 Gullone 등(2000)

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청소년 위험행동으로 자동차 운전 등과 같이 우리나라 문화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무모한 행동을 제외하고 반사회적 행동, 반항적 행동, 모험추구행동으로 개념화하였다. Oh, Ha, Lee와 Hong (2001)은 청소년의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재화 문제행동으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 youth self-report, K-YSR)를 구성하였다. Yi (2009)는 청소년의 위험행동 측정을 위해 숨은 비행척도(latent delinquency questionnaire, LDQ)를 기반으로 하여 음주, 흡연, 싸움,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으로 구성하였다. 한편 Lee (2005)는 청소년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약물, 음주, 흡연, 성, 폭력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상의 문헌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측정하는 도구의 구성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주로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수정·보완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들 도구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요 위험행동인 인터넷 과다사용이나 자살을 포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학생을 위한 위험행동 도구를 개발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보고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기 위해 일반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면접 시 익명과 비밀보장을 약속하였고, 개인적인 정보의 누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응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면접이 끝난 후에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중학교 2학년이 8명, 3학년이 8명이었으며, 남학생이 9명, 여학생이 7명이었다. 연구대상자에게 사용한 질문은 ‘자신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자신이 한 위험행동은 무엇입니까?’ 등이었으며, 질문을 통해 연구대상자가 자신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자유롭게 반응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청소년이 지각하는 위험행동의 의미와 위험행동에 기저하는 구조를 파악하였다. 면접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고,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였다.

청소년은 위험행동의 의미에 관한 질문에 ‘술, 담배, 약물 사용이 청소년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부모님과 갈등이 생겼을 때 가출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러한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책임질 수 없는 성행동이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친한 친구가 폭력 서클인 일진

회에 가입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매우 힘들어 했다.’, ‘갈등이 있을 때 죽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다.’, ‘인터넷을 하기 위해 친구와 약속을 어기고, 공부도 소홀히 한 적이 있다.’ ‘인터넷으로 인해 부모님과 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 선행연구와 청소년 심층 면접을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요 위험행동은 음주, 흡연, 약물사용, 가출, 성행동, 폭력, 자살행동, 인터넷 중독 등이었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연소화되고 있고, 비행이나 범죄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Lee & Lee, 2002). 청소년 음주는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사고와 폭력으로 인한 상해와 자살 및 인지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Hellandsjø Bu, Watten, Foxcroft, Ingebrigtsen, & Relling, 2002).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는 법률상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청소년이란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행동이며, 비행의 관문이 되기도 하고, 약물 사용의 관문으로도 작용한다(Crawford, Cohen, Midlarsky, & Brook, 2001). 청소년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사실보다 집을 떠나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위험에 당면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Chung & Kwon, 2001; Han, 2008). 청소년 가출은 위험성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안전한 성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임신이나 성병과 같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Jo & Kim, 2006). 청소년기의 폭력은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교나 학교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Kim, 2009),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근 또 하나의 청소년 위험행동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을 들 수 있다. 청소년의 인터넷 부정적 사용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성적 저하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회 감소로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을 야기하고, 생활 전반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09). 특히 인터넷을 통한 폭력적 게임이나 음란물 등에의 무분별한 접근은 청소년 비행을 야기할 수 있다. 아울러 청소년기는 위기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으므로(Hwang, 2007; Lee et al, 2010), 충동적인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위험행동으로 음주, 흡연, 약물사용, 가출, 성행동, 폭력,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 자살행동을 개념적 기틀로 구성하였다.

2) 1차 예비문항 작성

관련 문헌, 선행연구 고찰 및 청소년 심층 면접을 통해 확인된 개념을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1차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이 위험행동을 반영하는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중복되지 않는지, 적절한 용어를 사용했는지, 애매한 표현은 없는지, 어법은 정확하고 개념적 기틀의 하부 요인에 부합되는 지에 대해 검토한 후 청소년 4인을 대상으로 예비문항의 어휘의 난이도, 응답 용이성, 수정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 용이성은 양호하였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지적되지 않았으며, 표현이 애매한 것으로 지적된 어휘는 수정하였다. 그 결과 음주 8문항, 흡연 8문항, 약물사용 8문항, 가출 8문항, 성행동 8문항, 폭력 8문항,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 8문항, 자살행동 8문항의 총 64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 ‘항상 그렇다’ 5점, ‘자주 그렇다’ 4점, ‘가끔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위험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3) 내용타당도 검증 및 2차 예비문항 작성

전문가 집단을 통해 1차 예비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간호학 교수 및 정신보건간호사 8인, 심리학 교수 및 임상심리전문가 6인, 사회복지학교 교수 및 정신사회복지사 6인의 총 20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내용이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매우 적절하지 않다’ 1점, ‘적절하지 않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적절하다’ 4점, ‘매우 적절하다’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삭제하거나 추가해야 할 문항이나 수정해야 할 문항 및 기타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내용 타당도 지수를 검증한 결과 문항 전체가 .80 이상이었으나, 문항에 대한 전문가의 구체적인 의견이 통계적 수치보다는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 10문항을 삭제하고, 총 10문항을 추가하였다.

인터넷 관련 문항 중 ‘인터넷에서 무엇을 했는지 숨기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 인터넷을 하게 될 때를 기대하고 기다립니까?’의 문항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삭제하였고,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을 때에도 게임 장면에 있는 듯한 환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과다한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음주 관련 문항 중 ‘가족이나 친구들이

술을 끊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는 청소년에게 부적절하다는 의견으로 삭제하였고, ‘자신의 음주 행동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흡연 관련 문항 중 ‘담배를 친구와 함께 피운 경험이 있습니까?’는 유사한 문항이 있어서 삭제하였고, ‘자신의 흡연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약물 관련 문항 중 ‘다른 친구에게 약물을 팔거나 준 적이 있습니까?’는 청소년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삭제하였다. 성행동 관련 문항 중 ‘강제로 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까?’와 폭력 관련 문항 중 ‘흥기를 소지한 적이 있습니까?’는 청소년에게 문항의 내용이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삭제하였고, 약물, 성행동 및 폭력 각각에 대한 죄의식 문항을 추가하였다. 자살 관련 문항 중 ‘자살을 시도한 후 병원에서 치료 받은 적이 있습니까?’는 자살시도 관련 문항과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하였고, ‘자살시도와 관련된 행동으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내용타당도 검정 결과 추출된 문항은 음주, 흡연, 약물사용, 가출, 성행동, 폭력,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 자살행동에 관한 각 8문항의 총 64문항이었고, 반응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였다.

3.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정을 위해 2009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 분포를 고려하여 6개 중학교에 다니는 1,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에 따라 표본 표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일반적으로 변수의 4~5배 정도가 바람직하고, 문항분석을 위한 표본 수는 문항 수의 2~10배가 이상적임을 고려하여(Lee & Kim, 2002), 탈락률을 감안한 720명을 목표인원으로 하였으며, 응답이 완전한 717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4. 윤리적 고려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서면 동의한 720명을 대상으로 익명과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었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을 꺼리는 경우에 응답을 강요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여 설문지에 응답하는 데에 특별한 위험은 없으나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구결과로만 활용됨을 설명하였

다. 참여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5. 연구도구

문항의 준거타당도를 검정하기 위해 위험행동과 관련이 높은 위기 변인을 준거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위기: 위기를 측정하기 위해 Koo와 Keum (2005)이 개발한 위기스크리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위험요인 영역과 9개의 위기상태 및 문제행동영역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의 응답은 ‘예’, ‘아니오’로 측정하게 되어 있다. 위기는 개인요인, 가정요인, 또래 및 학교요인, 지역사회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기상태 및 문제행동은 가출, 약물사용, 신체적·성적 학대, 학업중단, 성매매, 인터넷 중독, 범법행위, 자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위기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반분법에 의한 Guttman의 신뢰도 계수는 .64이었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구성타당도는 문항분석과 Oblimin 회전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요인분석으로 검정하였다.
- 준거타당도는 위기를 준거변인으로 이용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검정하였다.
- 신뢰도는 내적 일관성을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와 반분법에 의한 Guttman의 신뢰도 계수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는 1학년 236명(32.9%), 2학년 234명(32.6%), 3학년 247명(34.5%)이었고, 남학생이 413명(57.6%), 여학생이 304명(42.4%)이었으며, 종교가 있는 학생이 382명

(53.3%)이었고, 종교가 없는 학생이 335명(46.7%)이었다. 성적은 상위가 205명(28.6%), 중위가 331명(46.2%), 하위가 181명(25.2%)이었다. 경제수준은 상이 54명(7.5%), 중상이 166명(23.2%), 중이 356명(49.7%), 하가 141명(19.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717)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rade level	1	236 (32.9%)
	2	234 (32.6%)
	3	247 (34.5%)
Gender	Male	413 (57.6%)
	Female	304 (42.4%)
Religion	Have	382 (53.3%)
	Haven't	335 (46.7%)
Academic achievement	High	205 (28.6%)
	Middle	331 (46.2%)
	Low	181 (25.2%)
Economic status	High	54 (7.5%)
	Middle high	166 (23.2%)
	Middle	356 (49.7%)
	Low	141 (19.6%)

2. 도구의 타당도 검증

1) 문항분석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문항 간 상관계수가 .30 미만이면 도구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80 이상이면 중복된 문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므로(Lee & Kim, 2002), 해당 문항과 전체 문항간의 상관 계수가 .30 이상이고 .80 미만인 문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항 제외 시 α 값의 변화를 고려하였다. 즉, 문항분석 결과 64문항 중 61문항에서 각 문항과 전체 문항과의 상관(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이 .31~.58의 범위에 있었으며, 3문항은 .30 이하였으나 이 중 2문항은 내용타당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삭제하지 않았다. 이들 문항 모두가 α 값의 변화가 .91~.92의 범위에 있어서 총 63문항이 채택되었다(Table 2).

2) 요인분석

도구에 대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가 요인분석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Kaiser-Meyer-Olkin (KMO) 검증결과 .89이었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 유의확률이 $p < .001$ 로 본 자료가 요인

분석으로 적절함이 확인되었다. 요인추출모형은 예측을 목적으로 하며 최소 요인으로 정보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할 때 주로 이용하는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이용하였으며, 고유값과 스크리 도표 변화를 고려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eigen value)이 1.0 이상인 4요인이 추출되었고, 스크리 도표에서도 4요인 이후 요인의 고유값이 수평적인 변화를 보였다. 분석 결과 4요인이 전체 변량에 대해 갖는 설명 변량은 48.1%였다. 요인회전방식은 본 도구의 문항이 사회심리적으로 해당하여 요인들 간에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Lee & Kim, 2002) 사각회전 방식 중 직접 오블리민(oblimin)을 이용하였다. 사각회전 결과 패턴행렬이 구조행렬보다 더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점(Lee & Kim, 2002)을 고려하여 패턴행렬 결과를 이용하였다.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이 .30 이상인 요인을 유의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Kwo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30 이하의 6문항을 배제한 57문항의 4요인이 선정되었는데, 각 요인에 속한 적재량은 .30~.73의 범위였다. 제1요인이 38문항, 제2요인 7문항, 제3요인 3문항, 제4요인 9문항으로 본 도구의 요인별 문항 수는 3~38개로 각 요인의 문항 수는 최소한 3개 이상의 변수가 포함되어야 한다(Eom, 2001)는 기본 가정을 만족하였다(Table 3).

3) 최종 도구의 하부 요인의 명명

제1요인은 위험행동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즉 청소년에서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음주, 흡연, 약물사용, 성행동, 폭력을 포괄하는 요인으로 총 38문항이 추출되었다. 이들 문항들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위험행동으로 청소년기에 규제를 벗어나고 싶은 반항 심리와 자제력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다. 또한 이들 행동들은 청소년기에 성인을 모방하고 싶은 충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며, 정상적인 발달과정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적절한 중재 없이는 청소년 보호법에 저촉되며 학교나 가족에게 문제아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으므로 '잠재적 문제행동'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들 행동들은 요인분석에서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중복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행동이므로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제2요인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힘의 상호작용에

Table 2. Item Analysis

Items	Corrected item-total correlation	Alpha if item deleted
1. Have you ever had a conflict with parents because of the internet use?	.36	.92
2.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on the internet longer than you intended?	.23	.91
3. Have you ever belittled your homework or school because of the internet?	.36	.92
4. Have you ever lied to your parents you don't use the internet though you have an access to it?	.32	.92
5. Have you ever had any illusion about being in the screen while not playing the internet game?	.37	.92
6. Have you ever spent more money because of the internet?	.41	.92
7. Have you ever broken promises with others because of indulging in the internet?	.40	.92
8. Have you felt guilty about an excessive internet use?	.35	.92
9. Have you ever drunk too much to control your body?	.53	.92
10. Have you ever drunk at the public places?	.47	.92
11. Have you been to adult bars to hang out and drink with friends?	.50	.92
12. Have you ever skipped your school due to alcohol?	.49	.92
13. Have you tried to quit drinking by yourself because you felt like having alcoholic problems?	.40	.92
14. Have you drunk more alcohol to feel drunken?	.53	.92
15.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drinking?	.47	.92
16. Have you tried any risk behaviors (violence, sex, suicide attempt) because of alcohol?	.46	.92
17. Have you ever smoked?	.59	.92
18. Have you ever smoked in the smoking prohibited areas (schools, churches, libraries, theaters, etc.)?	.56	.92
19. Have your family or friends encouraged you to quit smoking?	.42	.92
20. Have you failed to concentrate on your class because you can't help thinking about smoking?	.42	.92
21. Have you found yourself smoking as soon as you wake up in the morning?	.44	.92
22. Have you smoked more cigarettes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44	.92
23. Have you ever failed to quit smoking?	.54	.92
24.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smoking?	.44	.92
25. Have you ever used drugs (psychedelic, bond, butane gas, etc.)?	.33	.92
26. Have you ever used drug at the public places?	.47	.92
27. Have you ever skipped your school due to drug?	.49	.92
28. Have you failed to concentrate on something because you can't help thinking about drugs?	.45	.92
29. Have you taken more drug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49	.92
30. Have you tried any risk behaviors (violence, sex, suicide attempt) after using drug?	.48	.92
31. Have you ever offered drug to your friend?	.50	.92
32.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using drug?	.27	.92
33. Have you ever thought that nothing but a runaway can solve your anger with your family?	.49	.92
35. Have you felt an intense impulse to run away from home?	.50	.92
36. Have you ever made a plan for a runaway?	.53	.92
37. Have you ever tried to run away?	.46	.92
38. Have you been stayed with a friend who once ran away from home?	.45	.92
39. Have you done something risky (drug, violence, sex) since you ran away from home?	.45	.92
40.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running away?	.35	.92
41. Have you accessed to a porn web site or watched a porn video?	.31	.92
42. Have you felt sexual urges?	.31	.92
43. Have you teased someone (man or woman) on the street with obscene words?	.42	.92
44. Have you tried any physical contact with other people on the bus or subway on purpose?	.40	.92
45. Have you ever met through the Internet?	.35	.92
46. Have you had sex with the opposite sex?	.46	.92
47. Have you come down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44	.92
48.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sexual behavior?	.36	.92
49. Have you stolen other people's money or belongings?	.52	.92
50. Have you damaged any public facility or other people's property?	.45	.92
51. Have you threatened other students to do something?	.46	.92
52. Have you bullied another student?	.43	.92
53. Have you ever injured other people or been injured to the point needing their or your medical treatments?	.52	.92
54. Have you beat other people violently?	.47	.92
55. Have you ever rumbled with other people?	.43	.92
56.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violence?	.47	.92
57. Have you felt too sad or too frustrated to do your business or daily life as usual?	.36	.92
58. Have you ever felt a sudden impulse to commit suicide after being exposed by someone else's (friends, celebrities, etc) suicide?	.41	.92
59. Have you ever written a will to commit suicide?	.43	.92
60. Have you ever considered committing suicide seriously?	.43	.92
61. Have you ever made a specific plan to commit suicide?	.45	.92
62. Have you ever planned to commit suicide (such as buying a lot of pills at once)?	.59	.92
63. Have you ever virtually tried to commit suicide?	.58	.92
64. Have you felt guilty after you tried doing something like committing suicide?	.36	.92

Table 3. Factor Analysis of Final Items

Factors (no of items)	Items	Factor loading	Eigen values	Accumulative variance (%)
Factor1 (latent problem behaviors - 38 items)	27. Have you ever skipped your school due to drug?	.73	16.16	25.3
	29. Have you taken more drug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73		
	31. Have you ever offered drug to your friend?	.73		
	26. Have you ever used drug at the public places?	.70		
	30. Have you tried any risk behaviors (violence, sex, suicide attempt) after using drug?	.70		
	28. Have you failed to concentrate on something because you can't help thinking about drugs?	.69		
	46. Have you had sex with the opposite sex?	.64		
	47. Have you come down with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64		
	18. Have you ever smoked in the smoking prohibited areas (schools, churches, libraries, theaters, etc.)?	.63		
	11. Have you been to adult bars to hang out and drink with friends?	.62		
	16. Have you tried any risk behavior (violence, sex, suicide attempt) because of alcohol?	.62		
	12. Have you ever skipped your school due to alcohol?	.61		
	17. Have you ever smoked?	.61		
	9. Have you ever drunk too much to control your body?	.60		
	23. Have you ever failed to quit smoking?	.60		
	14. Have you drunk more alcohol to feel drunken?	.59		
	53. Have you ever injured other people or been injured to the point needing their or your medical treatments?	.57		
	15.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drinking?	.55		
	49. Have you stolen other people's money or belongings?	.55		
	55. Have you ever rumbled with other people?	.55		
	10. Have you ever drunk at the public places?	.52		
	21. Have you found yourself smoking as soon as you wake up in the morning?	.51		
	51. Have you threatened other students to do something?	.51		
	43. Have you teased someone (men or women) on the street with obscene words?	.50		
	20. Have you failed to concentrate on your class because you can't help thinking about smoking?	.50		
	44. Have you tried any physical contact with other people on the bus or subway on purpose?	.50		
	54. Have you beat other people violently?	.49		
	25. Have you ever used drugs (psychedelic, bond, butane gas, etc.)?	.48		
	45. Have you ever met through the Internet?	.48		
	19. Have your family or friends encouraged you to quit smoking?	.47		
	24.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smoking?	.47		
	56.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violence?	.47		
	22. Have you smoked more cigarettes because it makes you feel good?	.46		
	13. Have you tried to quit drinking by yourself because you felt like having alcoholic problems?	.45		
	50. Have you damaged any public facility or other people's property?	.44		
	48.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sexual behavior?	.40		
	52. Have you bullied another student?	.40		
	32. Have you felt guilty about your using drug?	.37		
Factor 2 (suicidal behavior - 7 items)	61. Have you ever made a specific plan to commit suicide?	.56	6.26	35.0
	60. Have you ever considered committing suicide seriously?	.56		
	57. Have you felt too sad or too frustrated to do your business or daily life as usual?	.50		
	58. Have you ever felt a sudden impulse to commit suicide after being exposed by someone else's (friends, celebrities, etc) suicide?	.49		
	59. Have you ever written a will to commit suicide?	.49		
	63. Have you ever virtually tried to commit suicide?	.40		
Factor 3 (runaways - 3 items)	62. Have you ever planned to commit suicide (such as buying a lot of pills at once)?	.30	4.48	42.0
	35. Have you felt an intense impulse to run away from home?	.43		
	33. Have you ever thought that nothing but a runaway can solve your anger with your family?	.40		
Factor 4 (internet negative use - 9 items)	36. Have you ever made a plan for a runaway?	.37	3.88	48.1
	6. Have you ever spent more money because of the internet?	.68		
	4. Have you ever lied to your parents you don't use the internet though you have an access to it?	.66		
	1. Have you ever had a conflict with parents because of the internet use?	.62		
	3. Have you ever belittled your homework or school because of the internet?	.62		
	8. Have you felt guilty about an excessive interne use?	.61		
	7. Have you ever broken promises with others because of indulging in the internet?	.59		
	5. Have you ever had any illusion about being in the screen while not playing the internet game?	.58		
	2.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on the internet longer than you intended?	.58		
	41. Have you accessed to a porn web site or watched a porn video?	.51		

논 의

서 일어나는 어려움의 결과로, 슬픔과 좌절감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살행위를 접할 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으로 유서를 쓰거나, 자살시도를 구체적으로 실제로 준비하는 행동으로 총 7문항이 추출되었는데 이를 ‘자살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제3요인은 청소년이 가족에 대한 갈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결할 방법으로 충동적으로 가정이나 보호시설로부터 벗어남으로써 적절한 물질적,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며, 그 결과 정신적 소외감과 신체적 고통, 지위의 상실 등을 겪는 행동으로 총 3문항이 추출되었는데 이를 ‘가출’로 명명하였다.

제4요인은 인터넷 게임, 음란물, 채팅 등을 통한 가상관계에 대한 지나친 몰입으로 인해 현실 세계의 학업이나 부모님 및 대인관계에 문제를 겪는 행동으로 총 9문항이 추출되었는데 이를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으로 명명하였다.

3. 최종 도구의 동시타당도 검증

수정된 위험행동과 위험행동의 하부요인이 현재의 상태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시타당도(concurrent validity)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시타당도 검정을 위해 위험행동과 위기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r=.60, p<.001$). 위험행동의 하부요인과 위기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잠재적 문제행동과 위기($r=.45, p<.001$), 자살과 위기($r=.57, p<.001$), 가출과 위기($r=.54, p<.001$),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과 위기($r=.27, p<.001$) 모두에서 유의한 순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4. 최종 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된 최종 도구는 4개 요인의 총 57문항으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요인별로 살펴보면 제1요인은 .93, 제2요인은 .89, 제3요인은 .87, 제4요인은 .83이었다. 도구의 반분법에 의한 Guttman의 신뢰도계수는 .93이었고, 요인별로 살펴보면 제1요인은 .87, 제2요인은 .84, 제3요인은 .72, 제4요인은 .79이었다.

청소년 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파악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여, 그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측정도구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지 않거나, 청소년의 위험행동의 일부분을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Gullone 등(2000)이 개발한 청소년 위험행동 도구는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모두 나타내기에 문항수가 적고,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관한 요인이 없으며,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해 포괄적이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청소년위험행동 실태조사(YRBS)를 위해 개발된 도구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 대상자의 심층 면접 중 가장 자주 언급된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요인이 없고, 빈도를 산출하여 점수화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Oh 등(2001)이 표준화 과정을 거쳐 개발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Korea-youth self-report, K-YSR)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행동으로 위축, 신체증상, 우울/불안, 외재화 문제 행동으로 비행과 공격성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119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수가 많고,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제 모두를 다루고 있어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구들은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들이며, 우리나라 청소년 위험행동 측정도구로 수정·보완하여 사용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여러 도구들의 단점을 보완하고 우리나라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비교적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위험행동 측정도구는 총 4개 영역, 57개 문항으로 Cronbach's $\alpha=.92$ 이었고, 각 요인별로는 .83~.92의 범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ronbach's α 가 .60~.70이면 수용할 만하며, Cronbach's α 가 .80~.90 이상이면 바람직하다는 Lee와 Kim (2002)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본 연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behavior and Crisis

(N=717)

Variable	Risk-behavior	Latent problem behaviors	Suicidal behavior	Runaways	Internet negative use
Crisis	.60(<.001)	.45(<.001)	.57(<.001)	.54(<.001)	.27(<.001)

구에서 개발된 위험행동 특정도구의 신뢰도는 이 조건을 충족하며,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7개 문항의 요인별 Cronbach's α 는 최저 .83 (인터넷 부정적 사용)에서 최고 .93 (잠재적 문제행동)의 범위를 보였고, 개념적 기틀의 형성, 내용타당도 검정을 거쳐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값 1 이상인 네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전체 변량의 48.11%를 설명하였다. 또한 문항의 요인적재량은 .30 미만인 6문항을 제외하고 모두 .30 이상으로 모든 문항이 유의하였다.

제1요인은 38문항이 추출되어 잠재적 문제행동으로 명명하였는데, 관련 문헌 검토, 청소년 심층 면접, 내용타당도 검정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최종문항을 작성한 결과 40문항 중 '음란 비디오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은 문항개발 당시의 의도와 달리 인터넷 부정적 사용중독 요인으로 묶였다. 또한 '자신의 약물사용의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은 문항간 상관계수가 .30 미만이었으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추가되었고 요인적재량은 .37이었으며, '성충동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은 요인적재량이 .30 미만이었어서 배제되었다. 최종적으로 제1요인은 음주 8문항, 흡연 8문항, 약물 사용 8문항, 성행동 6문항, 학교 폭력 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들이 제1요인으로 묶인 것은 청소년의 흡연과 알코올 남용은 다른 약물 사용의 관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Crawford et al, 2001), 대담성을 갖게 하여 과오를 범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성문란을 야기하거나, 폭력에 가담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행동들은 동시에 발생하고 중복된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Guilamo-Ramos et al., 2009) 개별적인 요인으로 추출되지 않고 동일한 속성을 지닌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된 것으로 사료된다.

제2요인은 7문항이 추출되어 자살행동으로 명명하였는데, 문항 작성 시 8문항 중에서 '자살시도에 관련된 행동으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의 문항이 요인적재량 .30 미만이었어서 배제하였다. 청소년은 슬픔과 좌절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부모와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 문제 해결책으로 충동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자살행동을 접할 때 쉽게 자살 충동을 느끼며, 자살생각과 자살계획으로 유서를 쓰거나, 자살시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도 한다(Hwang, 2007). 최근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는 과거의 청소년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보다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기대는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문제와

충동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제3요인은 3문항이 추출되어 가출로 명명하였는데, 문항 작성 시 8문항 중에서 '유흥업소의 사람 모집광고를 보면 관심이 끌린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가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경험이 있는 친구와 함께 가출한 적이 있습니까?', '가출을 한 후 위험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 가출에 대해 생각하면서 죄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등의 5문항이 요인적재량 .30 미만이었어서 삭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출을 생각하고, 가출 충동을 느끼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기도 하나, 실제로 가출을 시도하거나, 가출 후 위험행동을 시도하는 경우는 소수의 청소년에게 제한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청소년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출은 단순히 집을 떠난다는 사실보다 집을 떠나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어려움과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Jo & Kim, 2006). 즉, 청소년들은 가출로 인한 부적절한 숙식으로 심각한 건강문제를 초래하기도 하고, 흡연이나 음주, 약물남용 등으로 건강을 해치기도 하며, 위험 성행동으로 임신이나 낙태 등의 문제를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제4요인은 9문항이 추출되어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으로 명명하였는데, 문항 작성 시 8문항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인터넷을 합니까?'의 문항을 전문가적 판단으로 추가하였고, 요인적재량은 .58이었다. '음란 비디오나 음란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습니까?'는 문항개발 당시 의도와 달리 제4요인으로 묶였으며, 요인적재량은 .51이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심각한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은 게임중독, 음란물 접속, 채팅 등이다(Cho & Lee, 2004). 청소년은 이외에도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학업성적 저하, 건강 악화 등을 비롯해서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고, 부모와의 의사소통 기회가 줄어들어 정서적인 고립감과 우울을 느끼는 등 청소년 생활에 전반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Kim, 2009),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측정 도구에 의한 측정 결과가 대상의 현재 상태를 변별해 내는 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동시 타당도로 청소년의 위기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위기청소년(at-risk)이란 사회안전망에서 이탈한 가능성이 있거나 이탈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위기청소년이란 가정과 학교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해 건강한 성장을 위협받고, 나아가 문제행동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년을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은 가출, 학업이나 훈련의 중단, 폭력이나 성매매 등의 비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Hwang, 2007).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위기와 위험행동 간에 순상관 관계가 있었으며, 청소년의 위기와 위험행동의 하위 요인인 잠재적 문제행동, 자살행동, 가출, 인터넷의 부정적 사용 간에도 순상관 관계를 보여, 청소년 위험행동의 하위 요인 모두가 독립된 형태로 청소년의 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위험행동 관련 문헌 검토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기초로 하여 문항을 작성하였다. 또한 청소년 관련 전문가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청소년의 표현을 참고로 하여 가능한 문항을 쉽게 기술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구개발 과정에서 중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제한하였으므로, 초기 청소년의 위험행동 조기발견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위험행동 측정 도구가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는 초기 청소년의 위험행동을 반영하고 있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도구가 할 수 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중학생을 위한 위험행동 도구 개발로 초기 청소년의 위험행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집중 관리가 가능해지고, 위험행동 예방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의 위험행동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위험행동 청소년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검토 및 청소년 심층 면접을 토대로 개념적 기틀을 구성하고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여 중학생을 위한 위험행동 도구를 개발하였다. 문항분석과 요인분석으로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위험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위기를 준거 변인으로 선택하여 준거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s α 와 반분법에 의한 Guttman의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위험행동 도구는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효과적인 교육 및 지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과 연구 및 실무에 기여할 것이다.

개발된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중학생의 위험행동 정도를 파악하고, 나아가서 중학생의 위험행동을 예방 및 관리할 수 있는 간호중재 개발과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추후연구에서는 중학생뿐만 아니라 청소년 구성원 모두에게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대상자를 전체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6). Youth risk behavior surveillance: United States, 2005.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55(SS-5), 1-112.
- Cho, Y. R., & Lee, H. J. (2004). A study on an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3), 541-551.
- Chung, H. K., & Kwon, H. J. (2001). A forecast model on runaway youth.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1), 76-86.
- Crawford, T. N., Cohen, P., Midlarsky, E., & Brook, J. S. (2001). Internalizing symptoms in adolescents: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to parental distress and discord.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95-118.
- Eom, H. J. (2001). Methodological comparisons between principal component and common factor model: Use, misuse, and abuse. *Korean Journal of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Science*, 3(1), 101-130.
- Guilamo-Ramos, V., Litardo, H., & Jaccard, J. (2009). Prevention programs for reduc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mplications of the co-occurrence of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6(1), 82-86.
- Gullone, E., Moore, S., Moss, S., & Boyd, C. (2000). The adolescent risk-tak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evalu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2), 231-250.
- Han, S. C. (2004). Analysis of a prediction factor of risk behavior with adolescents at a small citi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8(3), 193-210.
- Han, S. C. (2006). Adolescent's risk behavior and the quality of life: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on risk behavior.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5), 99-116.
- Han, S. C. (2008). Exploration on risk and productive factors of adolescent runaway.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4(1), 273-298.
- Hellandsjø Bu, E. T., Watten, R. G., Foxcroft, D. R., Ingebrigtsen, J. E., & Relling, G. (2002). Teenage alcohol and intoxica-

- tion debut: The impact of family socialization factors, living area, and participation in organized sports. *Alcohol and Alcoholism*, 37, 74-80.
- Hwang, Y. J. (2007). *Development of a self-worth program for the adolescents at ri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 Jeon, D. H. (2002).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ensation seeking on risk behavior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San University, Kyung San.
- Jo, J. Y., & Kim, Y. H. (2006). A path model of self, family, & extrafamilial system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sexual risk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3), 181-195.
- Kim, H. L. (2008).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risk behavior in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J. H. (2004). *Youth health risk behavior survey in Korea*.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Kim, J. Y. (2006). *A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for the Korean version of youth risk behavior surve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K. T. (2009). *How mood affects message recall, intention, and attitude change among internet addi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Kim, M. S. (2008). Risk behavior of perspectives for lifestyle: Focus on reckless driving. *Korean Youth Research*, 15(1), 1-325.
- Kim, S. J., Lee, C. S., Kweon, Y. R., Oh, M. R., & Kim, B. Y. (2009). Test of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dolescent mental problem questionnaire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 700-708.
- Koo, B. Y., & Keum, M. J. (2005). *Development of the support model for crisis (possibly) youth*. Seoul: Government Youth Commission.
- Kwon, I. S., Lee, G. E., Kim, G. D., Kim, Y. H., Park, K. M., Park, H. S., et al. (2006). Development of a critical thinking disposing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950-958.
- Lee, H. S., & Kim, Y. (2002). *Korean SPSS 10.0 guide for the beginner*. Seoul: Bubmoonsa.
- Lee, J. H., Kim, K. H., Choi, M. H., Kim, H. Y., Oh, G. S., & Kim, K. S. (2010). A study on gender-role identity and cyber delinquency in high-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9(1), 76-84.
- Lee, J. J., & Lee, C. W. (2002). Youth risk behavior survey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19(3), 51-72.
- Lee, M. A. (2005). *A study on adolescents' deviant behavior depending on school-environment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Michal, L. L., & Ben-Zur, H. (2007). Risk taking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 with social and affective factors. *Journal of Adolescence*, 30, 17-31.
- Oh, K. J., Ha, U. H., Lee, H., & Hong, K. E. (2001). *K-YSR: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Seoul: Gungang-Jucsung Press.
- Yi, S. Y. (2009). *Mother's management strategy of peers relations, friendship quality, and problem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al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Yoon, H. M., & Nam, Y. O.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adolescents' risk-tak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3, 127-153.